

지난해 원룸·다세대 주택 16배 늘어

광주 39건 2186가구 인허가... 원룸형 92% 차지

수요 늘고 정부 규제 완화로 전세난 대안 각광

지난해 광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급증했다. 전년보다 인허가 실적이 16배를 훌쩍 넘어섰다. 1~2인 가구 주거 수요가 늘어난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 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광주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9건 2186가구로 집계됐다. 2010년 인허가 물량은 2건 123가구

였다. 전년 대비 1677% 증가한 수치다. 준공 실적은 2건 52가구였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2009가구로 전체 물량의 91.9%를 차지했다. 이어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형이 각각 72가구, 연립형이 33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943가구(14건), 가장 많았고, 북구 574가구(14건), 서구 412가구(3건), 동구 141가구(5건), 남구 116가구(3건)로 나타

났다. 전남지역은 390가구가 인허가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50㎡에 해당하는 원룸형과 85㎡(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도시지역에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전세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월세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룸형주택 1실구획 허용과 가구수 제한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3~6%에서 2%로 낮춘 것이 공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대안이다"면서 "특히 도심 곳곳에서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수 있고 자투리땅 활용이 가능해 도심공동화 해결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다산 금융상' 금상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21회 다산 금융상'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사회공헌,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 등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다산 금융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산 금융상'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공이 큰 금융인과 금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금융관련 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잘 고른 이불... 꿈결같은 하루

가격은 20만원~40만원.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수예매장에서는 화사하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되고 따뜻한 양단 신비 오이불을 선보여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또... 농협 전산장애

작년 대형 마비 사태를 빚은 농협 전산망이 새해 초 다시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24분부터 52분까지 28분간 농협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체크카드 고객들이 결제 등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이번 전산 장애가 작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고객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협 전산망은 지난달 2일에도 이틀간 장애가 났었다. /연병뉴스

전세난에 부동산 경매 인기

지난해 광주 2046건 낙찰... 아파트 낙찰률 57%

지난해 전세난으로 광주 부동산 경매가 전년에 비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거래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은 총 5269건으로, 이 가운데 2046건이 낙찰돼 낙찰률 38.8%를 기록했다. 감평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71%로 전년대비 58%보다 크게 올랐다.

경매물건 수는 전년대비 25.4%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같

았다. 아파트의 경우 전년대비 물건 수가 줄면서 낙찰률이 51.8%에서 55%로 상승했고, 낙찰가율 역시 90.8%에서 91.9%로 올랐다. 5월에는 10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9명에서 7.2명으로 증가했다. 상업용 역시 낙찰가율이 42.7%에서 59.3%로 상승했다.

토지도 낙찰률 30.5%→38.3%, 낙찰가율 64.6%→66.9%, 평균 응찰자 수 2.1명→2.5명으로 모두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지역 경매시장은 진행 물건 수가 전년 2만5413건에서 1만9800건으로 22%나 줄었다.

아파트는 993건에서 810건으로 줄었다. 물건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도 전년 18127건에서 13854건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물건 수가 한달에 100건도 안되면서 낙찰률이 57%나 됐다. 낙찰가율은 1월을 제외한 낙찰가율이 90~100%를 오가며 평균 87.1%를 기록했다.

전년에 좋지 않았던 상업시설의 경우 낙찰률은 29.8%에서 31.8%로 낙찰가율은 54.2%에서 62.6%로 각각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벌목 금지·연탄 부족 '대혼란'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②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②

전시에 탄광 복구 더뎠던 연탄 공급 대란

웃돈 없어야 출고... 끝내 다시 장작 허용

▲장작 부족에서 연탄 아궁이로

급박한 전시상황 아래에서 화순탄광의 전경 복구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료를 장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는 1951년초 이 장작연료의 자원인 산림의 벌채를 전면금지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산림벌채금지조치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모든 가정의 땀감 아궁이를 연탄 아궁이로 바꾸는 운동본부개조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계몽 부족으로 분구개량이 더딘데다가 무엇보다도 연탄 수요의 폭증을 유발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대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산림대로 도벌이 더욱 기세를 부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1950년대의 우리나라 산림은 눈길 닿는 곳마다 헐벗은 민둥산이어서 참담하고 삭막하기 이를데 없었다.

전시상황의 미숙한 행정력이 빚은 여허구니 없는 시행착오가 아닐 수 없다.

▲연탄전쟁

그러나 전시상황이 빚은 보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당시 정부는 지역 소요량의 고려없이 연탄배정을 전시 수도인 부산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화순연탄도 군사용과 관사용으로 막대한 양을 부산으로 돌리는 바람에 연탄공급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다.

또 그 무렵 연탄사정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공급과정이나 절차의 불합리성이다. 대형 연탄공장들은 대한석탄공사 광주주재소에 연탄 구매 수속과 함께 대금을 납입하고 출하티켓을 받아 화순탄광

에 내면 현품을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켓을 받는데 몇 일씩 걸리고 화순탄광에 티켓을 내고 또 수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절차마다 이모저모의 비리와 부조리가 성행했다.

특히 수요가의 대부분인 영세연탄공장의 경우 석탄조합이 이 절차를 대행하는데 시간 낭비와 불



필요한 부가 경비 때문에 석공의 공급가에도 웃돈을 얹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울머겨자먹기로 분량 미달과 저질탄을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연탄수요량은 가속적으로 증가되어 갔고 해마다 월동기에는 연탄과잉이 거듭되었다. 하절기부터 연탄업계는 물량 호가보수를 위한 연탄전쟁이 벌어졌고, 상공회의소와 시장, 도시사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탄배분량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연탄을 들여놓지 못한 서민들은

연탄가에 앞에 줄을 서고, 새끼줄에 한두개씩을 사들고 가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시 장작연료로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석탄금지지역을 제한했다. 즉, 광주,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한 전남도내 전 지역에 연탄을 땀감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대신 장작을 비롯한 연산료를 땀감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도내 4대도시만 연탄연료를 허용하는 대신 입산연료는 땀 수 없도록 장작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4대도시 인근 군지역 주민들은 한밤중에 단속반의 눈을 피해 인근도시에서 연탄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유행했는데 연탄공장은 공장대로 웃돈을 얹어받기 때문에 좀처럼 밀반입이 근절되지 않았



당시의 연탄 품귀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곳은 산업체들이었다. 배정량이 전년도의 실적에 묶여있는 데다 연탄과잉이 극심해지면 행정당국은 다급한 김에 산업용탄을 민수용으로 전용 배정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 때문에 관련기관·단체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위중 (연필)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되고,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악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적형성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사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웅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연초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웅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1024-종-4738호